끝과 시작이 모두 좋아야 다 좋다

(계2:8~11)

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끝과 시작이 모두 좋아야 다 좋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끝과 시작이 모두 좋아야 다 좋다'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전해오는 회자되는 말이거나 속담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삶속에서 이미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많고 괴롭더라도, 이제까지 지나왔던 과정의 끝인 지금 현재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성공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만한 조건이 주어지면, 그 모든 험난했던 과거의 과정들이 다 정당화되고 다 미화되고 다 감사함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끝인 지금 상태가 안 좋으면 과거에 좋았던 것도 다 속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끌리고 젊은이들 말대로 첫눈에 꽂혀가지고 사랑하고 구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3년 지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같이 살 수 없는 몹쓸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때는 콩깍지가 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여자가 계속 쫓아옵니다.
여자가 적극적인 공세를 핍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결혼을 했어요.
3년 뒤에 보니까 정말 결혼을 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정말 은혜였어, 감사해.
그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좋으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셱스피어에 의해서 희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희곡의 제목이 뭐냐 하면, All's well That Ends well.
그러니까 잘 끝난 것이면 다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독일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Ende gut, alles gut.
모든 사람이 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지요.
그 셱스피어 희곡에서 나오는 여주인공이 헬레나에요.
의사의 딸로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죽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버틀람이라고 하는 귀족 신분의 남성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버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헬레나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근데 아주 지혜롭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사랑을 구애하면서, 결국 프랑스 국왕에게 자기의 아버지께 배운 의술을 펼치면서 국왕을 낫게 해 갖고, 국왕의 힘을 빌어서 그 버틀람을 자기 남편으로 삼지만, 여전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버틀람이 전쟁으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서도 헬레나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결국은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버틀람이 자기를 좋아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 번 해 볼게요.
이렇게 버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헬레나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됐으면, 희곡이나 소설은 거기서 끝낼 수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끝이 아니지요, 끝이 아니지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맞아요, 근데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연세가 60이 넘으셔가지고, 든든한 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이 잘 살아진 겁니까? 그게 끝입니까?
아니지요, 그게 바로 오해라는 거예요.
끝에 대한 오해가 왜 생깁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 세상을 변혁시킨 창의적인 사람의 대표로 손꼽히고, 그 사람 같은 인생을 살지 못해 안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개벽시켜놓고 죽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겁니까?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게 오해에요.
간디라고 하는 사람을 위인으로 추앙합니다, 그분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끝난 겁니까?
위인의 삶으로 끝난 겁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끝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에요,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을 모르니까 끝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탕자 얘기가 나와요, 탕자.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앞에 에베소교회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일곱 교회에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소개하시는 당신의 모습이, 앞장에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계시되었던 예수님의 모습들이 부분 부분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한 키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 자신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마는, 앞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끝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어느 게 진정한 처음이고 진정한 마지막이냐를 알게 해주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데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왜 올바른 시작과 올바른 끝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이냐?

자!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부족할 것 없이 지내고 있는데, 아직 이 탕자는 자기의 인생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졸라서 유산으로 받아야 될 것들을 미리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먼 곳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내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오해였다는 거예요.

이 탕자의 진정한 시작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자기 인생의 시작이었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자기는 인생을 시작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나가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마지막에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같은 신세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탐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비로소 올바른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시작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나와서 시작한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본래 아버지 집에서 시작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내 인생은 원래 아버지 집에서 금 숟가락 은 숟가락 물고 태어났었는데 내가 지금 이 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서 나갔을 때, 이 탕자가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돈 많이 벌고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근데 그 끝도 오해한 끝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실질적인 이 탕자의 끝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그 아버지 집이 어디에요? 아버지 집으로 비유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도 앞으로 장차오실 이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시간과 연관시켜서, 그 속성을 드러내 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그러면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고 주님 자신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참 시작점도 없고 참 끝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파 이단의 우두머리인 유 병언 씨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유 병언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물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바깥쪽에 있는 탕자의 아버지의 집이 시작이었고 아버지의 집이 끝인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와 가지고 자기 인생의 시작점을 설정하고 끝점을 설정해도 그게 가짜 시작점이고 가짜 끝점이었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도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이 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시면서 우리의 시작점과 끝점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탕자얘기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 인생의 시작으로 보고 내 인생의 끝을 보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이고, 이 과정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까?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생년월일.
그 생년월일이 여러분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출생을 했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시작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다음에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것은, 어머니의 태에 임신된 것을 보고 비로소 택정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가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바울이.
'창조 전에 우리를 은혜 가운에 예정하셨다' 그럽니다, 시작을 찾은 거예요 시작을.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자기 출생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주님께서 택정하셨다는 시작을 보고, 시간과 공간 세계 바깥에서 자기 시작을 찾은 다음에, 자기 사역의 시작을 또 어떻게 찾습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만남으로써 그들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운 게 아니다, 내가 사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된 것도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라고 그래요,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라고 해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혈육상 유대인들이에요.
서머나 교회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박해한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더불어 로마의 박해가 함께 겹쳤기 때문에 더더욱 환란과 핍박이 커서 궁핍했다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활동조차도 다 막혀버린 겁니다, 이 핍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핍박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핍박을 당하면서 궁핍한 상태까지 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사단의 회가 됩니까?
유대인들의 자기 아이덴티티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육상 그 자손이 되는, 육체로부터 태어난 자기들이 진정한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아직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야에 대한 대망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메시야가 오시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서 우리를 번영하게 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탕자가 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 자기 혼자 지내던 그 과정이 완전히 돼지우리에 처박히는 그 인생의 과정이 마귀에게 지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의 시작을 보고 나의 끝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아버지와 어느 어머니 밑에서 몇 년도에 출생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한 내 인생을, 비록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러셨지만, 개천에서 용난다 그랬으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다 부러워할만한 그런 자

리에 올라섬으로써 인생을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있으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작과 끝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해가 우주 안에 떠 있잖아요, 달이 떠 있고.
지구가 해 주위를 한 바퀴 돌면 그게 하루입니다.
시간이잖아요? 시간인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간에 이동이 생깁니다.
공간과 시간이 이렇게 씨줄과 날줄로 얽혀있으면서 이 피조의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꽃이 피었다 집니다, 공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에 달렸던 이파리가 낙엽이 돼서 땅에 떨어져집니다, 공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있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시작점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몇 년도 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서 예정되었다는 말입니다.
피조 되도록 예정되었어요, 구원받도록 예정된 예정이 따로 있지만, 피조 되도록 예정되었어요, 아담 안에서.
그러므로 나의 진정한 시작점인 생년월일은 창세전입니다.
이 시작점, 창세전에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이 나의 참된 시작이라는 걸 알면, 끝이 어디입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얻게 되는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삶의 의미가 뭡니까?
시작을 깨닫고 그 시작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시간이 바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떡하느냐?
시작을 잘라내고 그리고 끝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막혀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믿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내 마지막 점의 성공을 위해서 믿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회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무라시지를 않아요.
그러나 나무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경고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처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유대인처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회라고 하는 유대인처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기 인생의 시작을 찾고 자기 인생의 끝을 찾는 겁니다.
메시아 대망도 결국 메시아 오시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를 번영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사단의 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하는 메시야의 사건입니까?
시간과 공간 밖으로 우리 마음을 끌어내는 것이에요.
본래의 시작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이 시공간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계속 시공간에 살고 있지만, 시공간에서 끝을 보려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시공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 둠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오늘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란과 궁핍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왜 환란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실상! 이게 중요합니다, 실상!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상황은 아직 실상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실상을 알려면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는 시작과 끝을 연결해 봐야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지금 내 삶의 처지가 어떤 상황인가가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간디가 위인으로 추앙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간디의 일대기를 일생을 읽어보면 교회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많았지만,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교인들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간디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인입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간디의 삶의 실상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끝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의를 추구했다는 것은,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좀 험악한 얘기입니까? 숭고한 삶을 산 간디의 얘기에 대해서?

자생한 의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 내부에서 자생한 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밖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이기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 우리 마음을 잡아끌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잡아끄는 가치가 얼마나 강하게 작용을 합니까? 근데 그걸 이기고 마음을 밖에 두는 겁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 상황이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핍절했어요, 경제적인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환란이 끊임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어 있는 마음으로는 못살아요.
마음에 채울 것이 없는 상태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 것들로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죽지도 않고 마음에 채울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은 비어있고 내 마음은 허전하고 내 마음은 공허한데, 채울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지옥이고,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시공간 안에서 우리 육체가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끝이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서머나 교인들은 이렇게 시공간 안에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착각되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질 때에, 시공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시간과 공간 바깥으로 두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뺏기고 그러는 가운데, 아~무 것도 세상에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쥘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쥡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시간과 공간 바깥으로 빠져 나가는 정도가 클수록, 마음의 양이 클수록 하나님을 많이 붙잡는 것이고, 실상을 보면 이들이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지금 시간과 공간 이 세계 안에서 잘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아들 됨을 여기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하나의 자궁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을 모태라고 하는 것처럼, 세태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자궁이에요.
이 자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커가는 것이 뭐에요?
탕자에게서 일어난 일처럼 아버지의 집에서만 참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로 커가는 겁니다.
어디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평강을 추구하려고 삽니다, 성공하려고 삽니다, 인생의 끝을 보려고 삽니다,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게 바로 타락이고 이게 바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서, '아!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내 끝이 없다, 내 성공이 없다, 나의 평강의 근거가 없다,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주님에게만 그 평강의 근거가 있고 행복의 내용이 있고 행복의 내용이 있고 내 인생의 성공이 있다, 내 인생의 성공은 주님의 십자가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이걸 깨달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 아들의 모습을 이루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자궁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으니까 별 볼일 없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별 볼일 없고 가진 게 없다 그러면 유리한 겁니다.
마음을 이 시간과 공간 밖으로 보내기가 유리한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보내는 겁니다, 미련 없이 보내는 겁니다.
날마다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양이 많을수록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보내는 양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다 좋다?
아니요~!
끝뿐만 아니라 시작도 바른 시작을 찾아내야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인생의 시작점과 인생의 끝점, 우리 인생의 성공점 절정은 시간과 공간 안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 스스로 서머나 교인들의 궁핍과 환란을 만들어내서라도 십자가를 통해 마음을 이 시공을 떠나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